

지역 소식 통

고창소방서, 폭염 대비 온열 질환 구급장비 점검 완료

고창군에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창소방서(서장 임정욱)가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신속한 응급 대응을 위해 폭염 대응 구급장비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고창소방서는 매일 아침 관내 모든 구급차량을 대상으로 열음조개,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체온계 등 폭염 관련 응급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비축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고체·액체 아이스팩과 열음팩 등 체온을 신속히 낮추는 데 필수적인 장비들의 확보 상황도 중점 점검했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신속한 처치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서림지구대, 베스트 자치경찰 서유라 순경 선정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대장 경감 이정열)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5년 2분기 베스트자치경찰(3급서) 지역맞춤형 치안활동 관련하여 적극적인 유도를 위해 전북지역경찰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림지구대 순경 서유라가 베스트자치경찰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울 1월 27일 발령받은 서유라 순경은 서림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관내금융기관 및 상가주변 주민 대상으로 방문해 보이스 피싱 예방·홍보활동 및 번개탄을 이용 자살기도자 인조구조 시행, 치매환자지킴이 행적추적으로 대상자에게 인계와 관내 자전거 절도범 현장검거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안전확립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이정열 서림지구대장은 “지역외근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愛 함께 살기’ 지역 농협 동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정읍愛 주소갖기 등 3대 중점전략 펼쳐

정읍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 운동’에 지역 내 농협이 동참하며 확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이 힘이네! 정읍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사랑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칠보농협(조합장 권순준), 신대인농협(조합장 황취중),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이 동참하며 캠페인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10만 명 이상 유치가 생활인구 월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읍愛 주소갖기(전입 유도) △정읍愛 머무르기(체류인구 확대) △정읍愛 함께살기(외국인 정주 지원) 등 3대 중점전략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시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구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



정읍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 운동’에 지역 내 농협이 동참하며 확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로 △출생축하금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 △육아수당 지급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구직지원금 △전입 청년이사비용 지원 △전입지원금 △청년·신혼부부 주거 이자 지원 △귀농인영농 정착 지원 △외국인 농업 근로자 공공기숙사 운영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 축하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실거주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민과 지역 기관·단체 모두가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

선풍기 · 수박 등 지원

정읍시가 폭염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풍기와 냉방물품 지원, 현장 방문 등 맞춤형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핵심은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에 있

다.

먼저 시는 폭염에 취약한 세대 600가구에 선풍기를 지원, 안부를 확인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또 728개소 경로당에는 음면동장이 수박과 커피를 전달해 무더운 날씨 속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폭염 대응 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복지 통합꾸러미’도 배부한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동봉해 필요한 상담을 안내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앞으로도 폭염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 일수가 길어지며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나도록,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멜론 · 땅콩 · 미니수박,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수상

고창군의 멜론, 땅콩, 미니수박이 10일 서울 코리야나호텔에서 열린 ‘제16회 2025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고객민족을 위한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품목에 수여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창 멜론과 땅콩은 각각 9년 연속, 8년 연속 더불어 고창 미니수박은



2년 연속 수상하면서 명실상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 농산물의 가치를 드높였다. 고창군은 멜론을 최고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최고품질 멜론 재배력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2023년 농촌진흥청 주관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싱가포르와 홍콩 수출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고창군은 땅콩 주산지로 재배면적이 전북의 75%인 380ha에 달하며 농가 수는 900여 농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적극행정’으로 답하다

부안군, 군민 체감 우수사례 6건 선정

부안군은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의 심사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 창의적·적극행정 사례와 더불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함께 발굴하며 적극행정의 다양성과 실천력을 더욱 높였다.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협업 우수사례 43건 중 실무심사를 거쳐 6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군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우수공무원의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환경과 김미경 주무관의 ‘변산비밀길 야생화단지 관광객 비상 대응과 협업으로 현장운영 총력’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변산비밀길을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야스타테이지 등 야생화단지를 확장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환경과를 중심으로 변산면, 관광과, 새만금간척박물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관광객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한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연간 관광객 50만 명 방문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지역 생활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를 이끌었고, 부안군의 자연친화적 생태관광도시 이미지를 한층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어서 계획면 유재성 주무관의 간척 농경지의 용수공급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한 ‘선제적 양수시설 설치로 애타는 농심 해갈’과 민원과 강해미 주무관의 ‘전국 최초 존치기간 미연장 가설건축물 양성화 추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사전 완납제를 통해 체납액 ZERO의 효과를 거둔 재무과 김도연 주무관과 연속적인 한전 제도개편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지역경제과 김무준 주무관, 전북 최초 납세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의 성과를 거둔 재무과 정지운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반기 적극행정·협업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상 우대조치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화영 부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 우선 행정철학에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실행력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적극행정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여름 정읍의 밤을 즐기세요”

‘정읍야밤 투어’ 150명과 함께 출발

정읍시가 여름밤의 낭만을 품은 야경 관광 프로그램으로 전국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오는 12일, ‘한여름밤 떠나는 달빛 사랑숲 정읍 야(夜) 밤 투어(이하 정읍야밤 투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의 야간경관 명소 활성화 연계 지원사업에 정읍시가 선정되며 마련됐다.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정읍시가 함께 추진한다.

이번 투어에는 전국 공모를 통해 모집한 관광객 1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12일 오후 3시 30분 정읍시문화공원에 집결한 뒤, 대형버스 4대에 나눠 타고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로 이동해 1시간 30분간 솔티숲 탐방과 보물찾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정읍천에서 저녁 식사 등 자유 시간을 가진 뒤, 오후 6시 50분부터

본격적인 야경 투어가 시작된다. 주요 코스는 전국 최초의 바다형 분수로 알려진 미로분수와 백제가요, ‘정읍사’를 테마로 한 정읍시문화공원, 그리고 달빛 사랑숲이다. 특히 사랑과 소원을 주제로 꾸며진 1.2km 길이의 산책로에는 미디어아트와 조형물이 어우러져 연인, 가족, 친구 등 누구나 함께 걸기 좋은 몽환적인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북불북 경품 이벤트, 버블매직 공연, 정읍 특산품으로 구성된 ‘야밤꾸러미’ 제공, 정읍 재방문 유도를 위한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려진다.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와 시 관계자는 “정읍은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야간경관이 아름다워 참가자 모집 당시 전국에서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